

Morning Meeting Brief

글로벌 전략

20.6월 시크릿 마켓 네비게이터 /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 증시 고점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지만, 1) 기업 규제책, 2) 유동성 살포, 3) 경제지표 개선이 맞물리며 증시 상승의 2라운드 국면 진입
- 미국 인종차별 시위, G2간 잠재된 갈등 양상보다는 3분기부터 가시화될 경기 회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증시 견인, Equity 선호 유지

[Issue Radar] 홍콩,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 지켜 낼까?

- 中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향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일 홍콩. 점진적인 대외 자금 유출 및 인재 이탈 불가피.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 실추 가능성
- 홍콩 금융시장, 중국 입장에서 1) 자국 국영기업 상장, 2) 외자유치 통로라는 상징적 의미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본토로 기능 이전할 가능성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Comment] 슈퍼겐코리아: 선명해진 세이버 사업, 목표주가 상향

- 투자익견 매수 유지, 세이버 실적 반영해 목표주가 96,000원으로 19% 상향
- 세이버 사업 추진 위한 389억원 금전 대여 공시 → 대규모 세이버 수주 확보, 약 5천만달러 규모의 수주 확보한 것으로 추정
- COVID-19 여파에도 예상보다 좋은 본업, 본업 영업이익 추정치도 5% 상향
- 세이버 실적 반영한 2020년 영업이익 675억원(+53% YoY) 전망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20.6월 시크릿 마켓 네비게이터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

유동성이라는 추진체에 경기회복 기대라는 보조 추진체를 바탕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증시

- 증시 고점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5월 경제 정상화 재개 이후, 발표되고 있는 5월 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안도감이 유동성과 조합을 이루며 증시는 어느덧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다.
- 3월 저점 형성 이후 글로벌 증시 상승률(41.7%, FTSE, 6.8일 기준)만 놓고 보면 조정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겠지만, 여전히 1) 저금리와 2)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3) 직접적 기업 구제를 바탕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는 판단이다.
- 과거 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이 꺼내든 유동성은 1조 달러였지만, 올해는 2조 3,000억 달러(+5차 경기부양책 예정, 최소 1조 달러 이상)로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 규모가 다르다.
- 3월 이후 증시의 추진체가 전적으로 유동성이라는 점에서 과거 위기 국면에서 보여온 증시 패턴과 눈으로 확인되는 수익률에만 의존할 경우,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 연준은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 국채와 MBS 매입 외 과거 전례가 없었던 회사채 매입 카드를 꺼냈다. 상당한 위험성을 가진 회사채까지 매입한다는 것은 파산 기로에 서 있는 기업을 시장 기능에 맡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존속을 유지시키며 당장의 경기회복을 위해 직접 구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전략: 코로나19 재확산 재연되기 전까지, 상승이라는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을 전망.
Equity 선호 유지**

-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기업 파산을 막기 위해 5월부터 기업 구제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연준 행보를 감안하면, 6월 이후부터 증시 추진체가 달라지며 상승이라는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다.
- 6월 이전 증시 상승의 주축이 기존 유동성 확대 정책이었다고 하면, 6월부터는 1) 연준 기업 구제, 2) 주요국(독일 2차 경기부양책, 미국 5차 경기부양책)의 유동성 살포 재개, 3) 5~6월 실물 경제지표 개선이 3분기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연결될 수 밖에 없어 위험에 베풀하는 투자자 기대가 주가에 투영될 것이다. Equity 선호를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 현 시점에서 노이즈로 작용할 만한 변수인 1) 미국내 인종차별 시위는 일부 지역의 폭도화가 오히려 여론이 등을 돌리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돼 평화 시위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 2) G2간 잠재된 갈등 양상은 양국 간 정책적 보복전이 나타나고 있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적당한 선을 지킬 수 밖에 없다.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상승이라는 추세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슈피겐코리아 (192440)

한경래
kyungae.han@dashin.com

이새롬
saerom.lee@da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96,000

상향

현재주가
(20.0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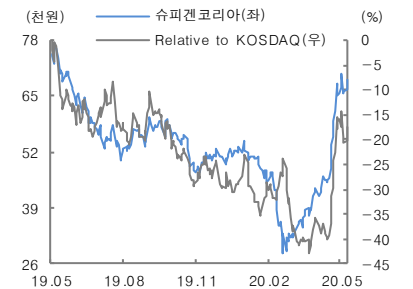
69,000

스몰캡업종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753.82
시가총액	42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8%
자본금(보통주)	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3,700원 / 28,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9억원
외국인지분율	15.60%
주요주주	김대영 외 3 인 40.99% 국민연금공단 6.1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8.4	60.3	39.3	-6.4
상대수익률	34.3	30.7	16.0	-11.0



선명해진 세이버 사업, 목표주가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세이버 실적 반영해 목표주가 96,000원으로 19% 상향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96,000원으로 19% 상향. 금전 대여 공시에 따른 세이버 사업 실적 반영해 2020년 실적 추정치 상향으로 목표주가 상향
- 1) COVID-19 관련 대규모 수주 확보로 인한 세이버 사업 가치 상승, 2) 아이폰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 따른 직접적 수혜, 3) 보호필름 및 에어팟 등 TWS 케이스 제품 확대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긍정적, 대규모 수주 확보로 인한 세이버 실적 반영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 기대

세이버 사업 추진 위한 389억원 금전 대여 공시 → 대규모 세이버 수주 확보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COVID-19 관련 제품 수주 확보, 389억원 규모의 금전 대여 고려 시 약 5천만달러 규모의 수주 확보한 것으로 추정, 2Q20~3Q20에 걸쳐 해당 수주 실적에 반영될 예정, 본업에 비해 이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전사 이익률 개선에 기여할 전망
- 이번 대규모 공급 계약이 원활히 마무리되면 확실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추가 공급 계약 가능성도 높은 상황
- 향후 세이버 사업은 아마존 유통 사업 중심으로 강화할 예정, 자회사 슈피겐뷰티 자체 화장품 브랜드 ‘Glam Up’, 하반기 자체 생활용품 브랜드 ‘Glam Up Fresh’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 세이버 사업 파트너도 20여개 업체로 지속 확대 중

COVID-19 여파에도 예상보다 좋은 본업, 본업 영업이익 추정치도 5% 상향

- COVID-19 영향을 직접적으로 겪은 시기에도 미국, 유럽 시장에서의 제품 평가 인상으로 선행한 실적 기록한 것으로 파악, 5월 이후는 아이폰 SE2 출시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확실한 성장세 기록 중, 기능성을 강화한 보호필름, 에어팟 판매 호조에 따른 TWS 케이스 판매 동반 상승으로 제품 다각화도 긍정적
- 본업 2020년 영업이익 추정치 5% 상향한 530억원(+20.3% YoY) 전망

세이버 실적 반영한 2020년 영업이익 675억원(+53% YoY) 전망

- 확보된 세이버 실적 반영해 2020년 연결 매출액 4,098억원(+32.8% YoY), 영업이익 675억원(+53.2% YoY) 전망, 향후 추가 계약 체결 시 실적 추정치 지속 상향 가능
- 세이버 사업 파트너 확대, 자체 브랜드 ‘Glam Up’ 등 슈피겐뷰티 및 세이버 사업 강화하는 만큼 지속적인 실적 가능, 온라인 소비 트렌드와 함께 에어팟 등 TWS 신규 매출 확대로 2020년의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1년 실적 성장 가능할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8A	2019A	2020F	2021F	2022F
매출액	267	309	410	422	493
영업이익	49	44	68	70	85
세전순이익	55	53	73	75	88
총당기순이익	43	40	56	59	68
자배지분순이익	43	40	54	58	66
EPS	6,870	6,480	8,724	9,259	10,591
PER	7.6	7.9	7.9	7.5	6.5
BPS	42,034	47,368	54,849	62,669	71,577
PBR	1.2	1.1	1.3	1.1	1.0
ROE	17.7	14.5	17.1	15.8	15.8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